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배롱나무를 향해 걷는 사람들, 명옥헌원림

유난히 길었던 여름이 지난다. 나에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건 오로지 식물뿐이다. 정원에는 짐작살나무의 열매가 보라색으로 익어 가고, 파리는 붉은 빛으로 변했다. 여름동안 생겼었던 배롱나무도 녹색빛이 되어간다. 배롱나무에 꽃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여름이 끝날 것이다. 운동을 하다 공원에서 꽃송이가 얼마 남지 않은 배롱나무를 보며 몇 주전 담양에 다녀온 일이 생각났다. 출장차 광주에 간 나는 예매해둔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담양 명옥헌원림에 들르기로 했다. 명옥헌원림은 조선 중기 명곡 오희도와 그의 넷째 아들 오이정이 많은 저술을 남긴 별서정원이다. 계곡에 물이 흐르면 옥구슬이 부딪치는 소리가 낫다고 해 '명옥헌'이라 이름 붙여졌다. 오희도는 당대의 인제로, 인조가 왕위에 오를 때 몇 번이고 오희도를 찾아 명옥헌에 왔다고 한다. 오희도는 예로부터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하였다. 나는 네비게이션이 안내한 대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명옥헌원림을 가리키는 안내문을 따라 마을 길을 걸었다. 햇빛이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 그 거리가 몇 백미터 되지 않았음에도 정원으로 가는 길은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안내문을 따라 무작정 걷다 고개를 드니 시야가 확 트이며 눈 앞에 연못과 배롱나무, 연꽃이 있는 풍경이 한 눈에 펼쳐졌다. 작은 연못을 둘러 붉은 꽃이 가득 핀 배롱나무가 서 있고, 연못 위엔 연꽃도 두어송

이가 피어 있었다. 연못 가장자리를 따라 걸으니 짙은 연꽃 향이 났다. 배롱나무는 백 일 동안 붉은 꽃을 피우는 나무란 의미의 중국명 백일홍나무에서 연유했다. 중국 원산으로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전 도입돼 절과 궁궐에 심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정원마다 배롱나무가 있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다만 이름처럼 꽃이 백 일 내내 피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나무에서 이 가지의 꽃이 지면 다른 가지의 꽃이 피는 식으로 꽃이 연이어 오래 핀다. 연못 뒤의 명옥헌을 올려다보니 유난히 붉게 물든 거대한 배롱나무가 보였다. 평일 오후인데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정원으로 들어왔고, 명옥헌에 앉아 더위를 식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옛 정원에서 이토록 많은 청년층을 본 건 오랜만이었다. 내가 명옥헌원림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것은 정원이 워낙 아름다운 덕도 있지만, 정원 입구까지 땀 흘리며 걸었던 수고 그리고 가로막힌 입구를 지나야만 정원을 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주차장이 정원 바로 앞에 있었다면, 정원이 멀리에서도 한눈에 들어오도록 노출되어 있었다면 정원을 처음 마주했을 때 느끼는 쾌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여름 꽃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그만큼 땀을 흘려야 한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명옥헌원림은 알려준다. 우리 모두가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에 거리가

이 없다. 얼마 전 서울 남산에 곤돌라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물론 케이블카와 곤돌라를 타면 풍을 들이지 않고 편하게 높은 산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그러나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서 마주한 산과 직접 두 발로 오른 산의 풍경, 우리의 감각, 사유는 완전히 다르다. 쉽게 얻은 결과는 시시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케이블카와 곤돌라라는 건 자연은 자연대로 훼손하고, 풍경은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시대의 우리가 많은 것을 시시하다고 여기는 이유,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근본적 이유는 쉽고 편한 길이 잘 닦인 문명, 그에 익숙해진 인간의 몸과 마음에 있다고 생각한다. 명옥헌원림에서 빠져나와 다시 주차장으로 가는 길은 웬지 짧게 느껴졌다. 정원으로 향한 길에는 보이지 않던 식물들도 보였다. 땅자나무, 하늘타리, 모과나무, 분홍날달맞이꽃 그리고 백일홍. 배롱나무만큼 오래 꽃이 피는 백일홍이 만개 중이었다. 백일홍만 피는 붉은 꽃이란 의미의 백일홍 이름 때문에 배롱나무는 줄곧 백일홍나무라는 별명으로도 불려왔다. 그러나 배롱나무와 백일홍 둘은 전혀 다른 식물이다. 명옥헌원림의 아름다운 연유는 배롱나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무더위에 땀 흘려 정원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수고로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여름이었다. <식물세밀화기>

의료칼럼

가을철 건강관리



박정열 상주365한방병원 한의학박사

올해는 라니나의 영향으로 인해 무더운 더위가 추석 연휴까지 길어지고 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무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시작될 것이다. 여름은 덥고 습한 특징으로 인하여 온열질환 및 냉방병을 조심해야 하는데, 가을은 더운 계절에서 겨울의 추운 계절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날씨의 변화로 인한 질병들이 유행하는 계절이다. 가을은 여름에 비해 선선하고 습하지 않아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대기환경으로 인하여 인체가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로 인해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나 알러지성 비염, 천식과 같은 환절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 가을철의 대표적인 환절기 질환인 감기는 발열, 두통, 근육통, 기침, 인후통, 콧물, 코막힘 등 매우 다양

한 증상을 유발하는데, 심한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가 오래 지속되면 인체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감기의 바이러스나 세균이 콧속 점막이나 인후, 편도와 같은 상기도를 침범하여 생기게 된다.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 독감의 경우는 이미 토착화된 감염병인데 바이러스의 변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감염이 확인되어도 증상에 따른 치료 이외에는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적인 가벼운 감기는 무리하지 않고, 푹 쉬면서 수분과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면 1주일 이내에 낫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특히 노약자의 경우에는 감기 초기부터 식욕부진, 소화불량이나 기관지염, 폐렴같은 다양한 합병증이 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가을철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는 알러지 비염이나 천식같은 알러지 질환이 있다. 가을철에는 건조해진 날씨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내부 환경, 먼지의 증가로 알러지 유발 요인은 항원에 쉽게 접촉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알러지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 알러지 비염은 항원 물질에 의한 코 점막의 과민반응

으로 발작적인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과 눈이나 코 주변의 가려움을 호소하게 된다. 또 알러지 천식은 기관지 점막의 과민반응으로 기관지가 붓고 기도가 좁아지면서 숨을 쉴 때 쉼쉼대는 소리가 나고 호흡이 힘들어지는 질환이다. 대부분의 알러지 질환을 경험한 환자들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주기적으로 증상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다른 알러지 질환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부터 병원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한다. 질병을 가진 노인들은 특히 가을철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하는데, 이 중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가을처럼 건조하고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잘 알고 있던 혈당 관리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당뇨병 환자들은 과식·과음에 주의해야 하며 당도가 높은 가을철 과일도 한두 조각으로 만족해야 한다. 가을의 건조함은 피부 가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어 보습을 위해 보습제를 수시로 잘 발라 주어야 하며, 물은 충분히 마셔야 한다. 당뇨병 환자는 감기에 취약하므로 독감과 폐렴백신을 접종하는 게 바람직하며, 몸이 아픈 날에는 혈당 관리에 더 주의한다. 가을엔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안전한 운동을 위해 운동 전 혈당 체크는 필수다.

社說

싸늘한 '추석민심', 여야 귀 기울여야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고 해도 명절은 명절이다. 올해도 고속도로는 수많은 차량들로 붐볐고, 혈육의 정을 나누는 풍경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닷새간의 황금 연휴가 이어진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과 쌀값 폭락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민들이 많았다. 광주·전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고향에 내려와 특정한 추석 민심은 '경제 살리기'였다. 특히 사상 유례없는 무더위로 삶터는 물론 시장도 모두 시들할 만큼 활기를 찾기 힘들었고, 쌀값·한우가격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한여름 폭염보다 뜨거웠다. 예년과 다른 점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불안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한 의료대란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격렬한 분노와 반발이 심각할 정도였다"면서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무조건 끌어내려야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고 전했다. 같은 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도 "쌀값이 폭락하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농민들의 절규가 생겼다"며 "이상고온으로 벼베고 밀도가 급증해 힘들어하는 농민도 많았다"고 전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서구을) 의원은 "군공황·탄약고 이전, 광주지하철 공사지연 등 산적해 있는 사업의 빠른 진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귀띔했다. 반면, 위안이라면 KIA 타이거즈의 정규시즌 우승 소식이었다.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은 "호남, 타이거즈, 민주당은 공동운명체이다. 기아가 잘하면 호남이 무척고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민심을 전했다. 추석 민심을 피부로 느낀 정치인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해법의 제1원칙은 오직 민생만 보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쌀값안정과 의료대란 해소 등 민생만큼은 정파를 떠나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전남 의대 목포·순천대 통합 공동 의대 추진을

전남지역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동부권 순천대와 서부권 목포대를 통합해 공동 의대를 추진하는 주장이 나왔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 고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일한다. 또 한 목포대와 순천대는 모두 국립대로서 비교적 통합이 용이하고 학생 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기회에 양 대학을 통합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지역 정부 추진 용역 수행기관인 'AT커니코리야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최근 국민공정회(6회)와 여론조사, 대학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 의대를 한 곳에 선정할 땐 동·서부권에 2개의 대학병원을 신설하는 '1대학 2병원'안을 제시했다. 의대 입학정원은 오는 2026학년도 타 지역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 규모를 고려

하면서 지역의 의료인력 수요를 감안해 200명 내외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1대학 2병원'안은 그동안 여론의 흐름상 유력한 설립 형태로 거론됐지만 공동의대 추진은 전혀 새로운 방안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용역기관은 전남 동부·서부 모두 의대와 부속병원이 필요하고, 정부가 국립대학 간 통합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양 대학이 통합을 약속한다면 공동의대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양 대학이 '대학통합 전체 공동의대 추진 협약서'를 제출하면 선정위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의대와 부속병원 건립까지는 수년에서 10년 가까이 오랜 시간이 필요할 만큼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의대 추진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도 순천대와 목포대가 공동 과정에 크고 작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모든 절차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기고

2024여름 '이 또한 통쾌하지 아니한가'



곽성구 전 광주일보 교사

'올해가 제일 덥지 않을 거다'는 기상 예보는 반갑지가 않다. 이렇게 겉디기 힘든 날씨가 계속되고 9월인데도 폭염 주의보가 계속되는 상황인데 제일 덥지 않을 거라니 내년에는 어떻게 살라는 예보인지 참 알잡다. '날씨와 싸우지 말자'는 나의 마음 자세는 어느새 무너지고 짜증스러운 24년 여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는 기대만 가득하다. 옛 선현들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를 생각하다가 정다산 선생의 불역패재를 펼치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제1편에 "跨月蒹葭積穢氣(과월증립적예분) : 한 달 넘게 짜는 장마에 쌓인 곰팡내/ 四技無力度朝暉(사지무력도조훈) : 팔다리로 맥이 없어 아침 저녁 보내다가/ 新秋碧落登寥廓(신추벽락정요곽) : 가을 되어 푸른 하늘 맑고도 넓어/ 端軒都無一點雲(단

현도무일점운) : 하늘 땅 어디에도 구름 한 점 없다면/ 不亦快哉行(불역쾌재행) : 이 또한 통쾌하지 않은가?' 라는 문장이 있었다. '아 그렇구나.' 선조들도 이런 고통을 어렵게 이겨내시고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 또한 이런 통쾌한 경험을 따라가면 통쾌한 경험을 쉽게 얻을 것 같았다. "장마 내내 자랐던 잡초들을 바라보다 / 얼마나 자라는가 어디 두고 보자 / 장마가 지나고 보니 제멋대로 자라서 /내 키를 훨씬 넘게 자랐는데도 /언제 어떻게 깎아볼까 생각만 하다가/ 팔월 가고 구월 되어 큰 맘 먹고 시작하니/ 게으른 내 얼굴에 땀방울은 그칠 없네/ 잠깐 눈을 들어 먼 하늘 바라보니 / 그래도 구월이라 구름 한 점 없이 흐르는구나 / 서늘한 한 줄기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쳐간다 / 이 또한 통쾌하지 아니한가." 그동안 이리 저리 게으름 피웠던 작업을 제법 깨끗이 치우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웠다. 더구나 우리집 자갈고 맑은 물로 지친 몸에 흠뻑 적시니 공포스럽게 짝짝 짝 짝 놀랐던 어린 시절 등물했던 짜릿한 추억까지 불러왔다. 이 또한 얼마나 통쾌한가. 몸을 씻고 내친김에 다산 선생의 불역패재를 공감하며 읽어왔다. 그런데 내 눈을 의심하는 구절에서 한참

을 머물렀다. 제15수는 "飛雪漫空朔吹寒(비설만공삭취한) : 날리는 눈보라 찬 하늘에 삭풍 차갑게 불고 / 入林狐兔脚踟躕(입림호토각반산) : 숲 찾아든 여우와 토끼 다리 절고 있을 때 / 長槍大箭江絳輝(장창대전홍용모) : 긴 창에 큰 화살로 흥전립 모자 놀러 쓰고 / 手生禽脚掛鞍(수설생금족괘안) : 산 채로 손에 잡아 안장 곁에 꿰어찬다면 / 不亦快哉(불역쾌재) : 이 또한 유쾌하지 아니한가."다. 마지막 절구 手生禽脚掛鞍(수설생금족괘안) : 산 채로 손에 잡아 안장 곁에 꿰어찬다면은 다산 선생의 의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산 선생님도 그 짐승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을 거라고 짐작했다. 추위에 떨고 있는 가여운 짐승들이 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산 채로 손에 잡아 안장 곁에 꿰어 찬다면'을 '짐승을 살려주려 조심스레 손으로 보듬어 안장 곁에 실어 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나니 내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 다산 선생도 '그래 자네 생각이 더 인간적'이네'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듯 하였다. 이 또한 얼마나 통쾌한가? 내 2024년 겉디기 힘들었던 무더위와 한 바람 어려움을 남기고, 이 또한 통쾌하지 아니한가를 남기고, 이렇게 지나가려나 보다. 어느새 가을 귀뚜라미는 창문 가까이서 가을을 노래하고 있다.

無等鼓

“책”과 관련해 사라진 직업 중 흥미로운 게 전기수(傳奇叟)다. 조선 후기 소설을 전문적으로 읽어 주던 낭독가로, 저자 거리에 자리잡고 앉아 맛깔스럽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했다. 혼자 1인 다역을 하며 수많은 등장인물을 표현하는 재주 덕에 인기가 높았는데, 무성영화를 틀어놓고 온갖 배역을 연기하는 변사를 떠올리면 되었다. 영상과 달리 글은 실체를 볼 수 없으니, 사람들은 전기수의 이야기에 빠져 상상력의 나라를 펼쳐본 듯했다. 얼마 전에는 '조선 이야기'를 무지컬 책 축제에 소개했다. '책 읽는 서점'인 '책채' (冊倫)라는 직업도 있었다. 16세기 조선시대 때 처음 등장했다고 알려진 책채는 서점이 없던 시절 전국 곳곳에서 책을 팔던 서적 중개상이자 책 거간꾼이다. 이들은 단순히 책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책을 소개하고, 책을 직접 출판하기도 했다. 영조 때는 태조와 인조를 모독한 구절이 담긴 청나라 책 '명기잡략'을 소개한 자와 판매자를 잡아들인 사건으로 100명의 책채가 죽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요즘 '현대판 책채들'을 만날 수 있는

책 축제에 인기가. '책의 도시' 전주가 올해 두번째 '전주 책채'를 열었고 서울국제 도서전에는 15만명의 유료 입장객이 다녀갔다. 올해 첫선을 보인 군산 북패어역시 젊은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요즘 광주의 핫한 도서관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동구 책채원에서도 얼마 전 '제1회 책정원도서관 책축제'가 열렸다. '책 읽는 ACC' 행사를 열었고 있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 오는 28-29일 '책에서 세상을 만나다'를 개최한다. 전국의 40개 독립서점, 출판사와 꾸리는 북마켓을 비롯해 오는 시인의 낭독회, 소설 '일의 슬픔과 기쁨' 재주소년의 플라보 공연, 플라마켓 등이 열린다.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제5회 아시아문화페스티벌에도 들려볼 만하다. 옥스퍼드대 교양도서 선정,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화제작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의 차인규 강연 등 풍성한 행사가 대기중이다. 전국에서 책 붐짓 지고 광주를 찾는 '책채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어쩌면 '인생책'을 찾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洵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시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정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경 제 부 220-0648	여 론 매 체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업 무 국 220-0551
제 2 사 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